

건강도 챙기고 동네도 깨끗이...광산구 '1일 1줍깅' 열풍

'지구를 살리는 행복걷기' 환경정화캠페인...앱 '워크온' 활용 참여 챌린지 코스·상품이벤트·봉사활동 인정...청소년·취준생에 인기

광주 광산구가 추진하는 '줍깅'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시민들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흥미를 돋우는 챌린지 코스를 운영하고 상품 이벤트와 함께 봉사활동 시간에도 포함 돼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1일 1줍깅' 트렌드도 생겨났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구를 살리는 행복걷기'를 슬로건으로 비대면 시민참여 환경정화캠페인 '줍깅'을 추진하고 있다. '줍깅'은 걷기(조깅)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플로깅(이삭을 줍는다는 의미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조깅의 합성어)'으로도 불린다.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도 지키는 생활밀착형 환경보호운동으로, 광산구는 걷기앱인 '워크온'을 활용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광산구 줍깅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개별적으로 걷기를 하면서 내 집 주변 등 쓰레기를 줍고, 분리배출만 하면 끝이다. 단,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열심히 줍깅한 활동 내역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줍깅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개인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품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일상 속 감염병 걱정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참여시민도 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광산구 줍깅 커뮤니티 가입자는 2081명이다. 광산구는 '줍깅'을 통한 활기가 지역 사회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매월 특정한 주제를 정해 챌린지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3-4월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송정-점단 10개 권역 상가와 우산-수완-신창 15개 권역에서 각각 챌린지가 진행됐고, 5월은 '5·18민주화운동 추모'를 주제로 광주송정역, 운상원 열사 생가 등에서 챌린지가 펼쳐졌다. 지난 3월 375명에 달했던 챌린지 참여 인원은 4월에 949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이번달에도 지난 12일까지 벌써 502명이 참여해 누적 1826명을 기록 중이다.

실질적인 시민의 활동량을 나타내는 줍깅 커뮤니티

활동 게시글도 12일 기준 2369건에 달했다. 특히 월별로 보면 3월 165건에서 4월 1510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달도 지난 12일까지 벌써 694건의 글이 올라와 '줍깅' 열풍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게시글 중에는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며, 줍깅 확산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글도 적지 않다. 특히 이 같은 참여 열기 주도층이 청소년, 청년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 '줍깅'에 참여하면 3km당 1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얻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봉사활동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봉사시간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줍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실제 봉사활동 신청 건수를 보면 지난 3월 50건에서 4월엔 104건으로 2배가 늘었다. 5월도 12일 까지 43건이 접수됐다. 봉사활동 신청자 연령을 보면 20대가 83명, 10대가 43명으로 10~20대가 81%를 차지했다.

광산구는 여기에 코로나19 걱정 없이 일상에서 쉽고 안전하게 참여 가능하고, 활동 참여부터 봉사활동 신청까지 '워크온' 앱에서 한 번에 가능한 편의성까지 더해진 점을 인기 요인으로 보고 있다.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함께 신청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첨단2동 주민들이 거리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을 실천하고 있다.

했다가 '줍깅' 매력에 빠져 매주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삼호 구청장은 "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우리 동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다양한 매력으로

'줍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며 "더 즐겁게, 지속적으로 '줍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오월국제교류음악회 참가자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미얀마어로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

광산구, '오월국제교류음악회' 유튜브 송출

광주 광산구는 "지난 25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오월국제교류음악회'를 '광산구' 유튜브(YouTube) 채널로 송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월국제교류음악회는 광주 오월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세계 음악인들과 함께 만드는 공연으로, 2014년 시작해 올해로 8회를 맞았다.

박광신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올해 음악회 주제는 '미얀마를 위한 행진곡! 미얀마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였다. 공연은 1980년 5월 광주와 닮은 2021년 미얀마의 상황을 환기하고 연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광산구립합창단은 미얀마인 2인을 초청해 미얀마어로 부른 '님을 위한 행진곡'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또 광산구립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꿈아에서', 프로젝트 앙상블련의 '직녀에게', '작은 연못', 일본 일어서라! 합창단의 '광주여 무등산이여', 더 클래식 아우름의 '그리운 금강산', '내나라 내겨레' 공연 등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아트피크닉, 온택트로 즐겨요"

광주시, 29일~10월30일 온·오프라인 운영... 이동식 과학관 등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21 아트피크닉'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아트피크닉은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6시 광주시립미술관 잔디광장에서 진행한다. 올해는 특히 집에서 재밌고 안전하게 '아트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2021 아트피크닉') 등 온택트(On-tact : online+untact, 영상 대면) 형태로도 운영한다.

또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광주다움'을 더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한편 자치구로 '찾아가는 아트피크닉'도 확대해 실시한다.

오강만죽 아트피크닉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집으로 '아트박스' 체험꾸러미를 배송 받아 직접 경험하고 만들어보는 어린이 아트스쿨(회차별 30가족)과

우리가족 아트스쿨(회차별 30가족) 등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아트박스 체험꾸러미 신청은 해당 회차의 전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아트피크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월요일에 선착순 60가족(어린이 아트스쿨 30, 우리가족 아트스쿨 30)을 선착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특별 체험 프로그램(특별한 보충수업)으로는 국립광주과학관과 연계된 이동식 과학관 체험이 새롭게 마련됐으며, 가지체험 '엄사이클링 스킵'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있다.

행사와 관련된 내용 확인 및 사전 접수는 '2021 아트피크닉' 홈페이지 또는 2021 아트피크닉 사무국(062-413-2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선정

광주 광산구는 26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1년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30일 이상 장기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돌봄이 어려운 병원 생활

을 하는 장기입원 환자를 찾아 퇴원을 돕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 중인 수급자가 행복한 노후를 병상이 아닌 편안한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민들의 존엄성 및 삶의 질을 찾고, 더불어 의료급여 재정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광산구, 6월1일부터 접수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은 소상공인 임대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이다. 다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 일때는 3개월로 환산 적용한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한다.

감면액은 재산세 산출세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200만원이 한도다. 3개월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초과 월 수에 5/100을 곱해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한도는 최고 75%로, 지난해(최대50%, 100만원 한도)에 비해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관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1과 재산세팀(062-960-8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